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8. 10. / (총 8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노홍인 제1통제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7월 26일(일)부터 8월 8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1명으로 이전 2주간(7.12.~7.25.)의 19.9명에 비해 7.8명 감소하였다.
 - 지난 2주간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목표치인 80%를 넘겼으며,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8.5%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개척교회와 식당, 카페 등을 통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7월 12일 ~ 7월 25일		7월 26일 ~ 8월 8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9.9명		12.1명
수도권	15.4명		10.2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31.4명	⇒	21.4명
집단 발생 ¹⁾ (신규 기준)	10건		6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6.4% (46/719)		8.5% (40/470)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80% 미만		80% 초과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방역강화 대상국가(6개국)를 지정하는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 결과, 최근 2주간 해외유입 환자는 일 평균 21.4명으로 그 직전 2주간(7.12.~7.25.)의 31.4명에 비해 10명이 줄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 특히,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의 PCR 음성 결과서 제출이 의무화된 7월 13일 이후 일 평균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는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일 평균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 (7.1.~7.12.) 21명 → (7.13.~7.19.) 16명 → (7.20.~8.6.) 5명

- 한편 8월 10일 기준 코로나19 치명률은 2.09%를 나타내고 있다. 2월과 3월의 신규 확진자가 4월까지 사망한 비율은 2.46%이나, 5월과 6월의 신규 확진자가 7월까지 사망한 비율은 0.98%로 1.48%p 감소하였다.
- 이는 환자 수 감소에 따라 중증·위중 환자에 대한 의료자원의 집중이 용이해졌고, 그간의 코로나19의 임상 치료경험이 축적되며 최선의 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특히 60대 이상 환자의 치명률은 9.50%에서 3.76%로 5.74%p 감소하였는데, 고위험군인 고령 환자에 대해 효과적인 치료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치명률 비교 >

구분	2~4월 사망 / 2~3월 확진	5~7월 사망 / 5~6월 확진	변화
전체 치명률	2.46 % (240명 / 9,775명)	0.98 % (20명 / 2,034명)	△1.48 %p
60대 미만 치명률	0.26 % (19명 / 7,449명)	0.00 % (0명 / 1,502명)	△0.26 %p
60대 이상 치명률	9.50 % (221명 / 2,326명)	3.76 % (20명 / 532명)	△5.74 %p

- 정부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발생과 치료체계는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 특히, 소규모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공동식사나 소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대응 상황

- 정부는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시설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이재민 다수가 임시주거(대피)시설에서 생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방역물품의 수요를 파악하고 신속히 지원하고 있으며,
 - 임시거주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고, 주기적인 환기, 이재민 발열 확인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구 중 소득·재산기준* 충족 가구에 대해 생계비·주거비 등 긴급복지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온라인 기반의 ‘덜어요’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1인 미디어·유명인의 릴레이 영상제작·확산과 덜어먹기 인증사진 이벤트*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캠페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 * 자신의 덜어먹는 사진을 농식품부 페이스북 댓글로 올리고 다음 참여자 지목
-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방학을 맞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방학·휴가 기간에 3行·3禁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수련회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의 참여 자제를 안내하고 있다.

3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9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3,402개소, ▲실내체육시설 264개소 등 32개 분야 총 5,051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등 7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강원에서는 종교시설 38개소 등 82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제주에서는 실내체육시설 201개소 등 23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6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53개반, 23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106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658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9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132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34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97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03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8.9)는 불시점검 등으로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차량을 운전한 사람 등 무단이탈자 2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7개소 2,84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1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8월 9일) 입소 145명, 퇴소 168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37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 예방 3행(行)·3(禁) 수칙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7.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9.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